

# '안정속 지속성장' 원년돼야

## 2000년 한국경제 과제 점검 1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 새해는 경제부문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해가 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정진해온 한국경제는 이같은 구조조정을 완성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총선을 실시하는 내년엔 선거가 경제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경제주체들이 각별히 노력해야 하며 점차 불안해지고 있는 노사문제도 모처럼 회복국면에 들어선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 새해에는 또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건전재정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하며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필수적인 정보·지식사회를 구축하는데도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새해 우리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5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살림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로서 한국금융연구원의 최공필(崔公弼) 박사는 과열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통화량이 많은데도 투신문제 등으로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물가불안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중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물가불안이 갑작스럽게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열을 막는 중요 방책중의 하나로 재정긴축이 꼽히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행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긴축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게다가 올해말 국가채무는 112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중남미 국가들이 계속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재정적자 때문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경(金俊經) 박

## 재정 적자 축소·정보지식사회 구축 기틀 마련 고속 성장따른 물가불안 등 '과열' 경계해야

과열을 의미하며 이는 총수요압력을 초래해 물가와 금리불안 그리고 고비용 구조를 다시 불러온다. 기업이나 가계가 모두 부동산투기 에나 열을 올리는 망국병은 물가불안을 타고 번진다.

아울러 경기과열은 내년 봄 '춘투'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성장률은 높고 기업들의 수익은 향상됐는데, 왜 우리가 계속 회생당해야 하는지는 논리와 주장이 노동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노동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상승은 결국 상품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어 물가불안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빠른 경기회복으로 인한 달러공급 유입과 이에따른 원화가치 상승기조도 결국수출에 차질을 가져오고 경상수지를 악화시켜 나라

사는 '올해의 고성장은 정부의 저금리와 재정확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등에 따른 고비용구조를 다시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재정을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미시적 차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지속적 추진을 강조했다. 낮은 성장률과 5대재벌의 부채비율 200% 총족 등에 의해 기업구조개혁이 마무리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지식이 주도하는 21세기를 맞아 지식기반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식기반 사회를 확립시키는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연구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 통계로 본 경북의 하루

경북지역에서는 지난해 하루 94명이 출생하고 6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구립 30일 발간한 1999년판 제39회 경북통계연보에 수록된 지난 98년 현재 경북의 하루를 보면 결혼은 49쌍인 반면 이혼도 12쌍이나 되고 125명도 단일혼은 하루 2천 2백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쇠고기 및 돼지고기소비량은 각각 378마리 및 2천762마리로 97년의 336마리 및 2천 358마리에 비해 13% 및 17%가 증가했다.

## 94명 출생 60명 사망 49쌍 결혼 12쌍 이혼

1일 유류소비량은 6만8천 244배럴이며 전력사용량은 5만5천562kwh, 급수량은 72만 2천390m<sup>3</sup>, 쓰레기수거는 1천 979(8트럭 247대분)으로 97년의 2천44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운수교통분야의 경우 1일 교통인구가 104만명인 것을 비롯 운전면허발급 334명, 교통사고 54건, 사망자 3.3명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은 97년의 59건과 4.2명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또 화재 및 범죄발생은 각각 4.3건 및 241건, 건축허가 건수는 18동, 우편물배달 99만8천통, 지방세징수 97년의 24억원보다 다소 줄어든 22억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선기자]

## 강재수요 사상최고 예상

작년보다 6.5%증가 4,955만t 이를뚫

내년도 강재 총수요는 4천955만t에 달하고 수출은 일부 감소하는 연보에 수록된 지난 98년 현재 내수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포스코경영연구소(소장 오관치)는 최근 올해 강재 총수요가 99년 4천661만t에 비해 6.5% 증가한 4천954만6천t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최고량인 97년의 4천850만9천t보다 103만7천t이 많은 것으로 강재 총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11월 전망치를 내놓은 한국철강협회의 4천899만5천t보다도 55만1천t이 많은 것이다.

분야별로는 수출은 선진국의 수입규제 및 개도국의 자급률 향상을 99년 추정치 1천284만4천t보다 3.1%가 줄어든 1천244만9천t에 머

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내수는 자동차, 가전 등 제조업의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건설업도 점차 침체상태에서 벗어나는 등 국내 수요산업 전반의 호조세에 따라 99년 추정치 3천366만6천t보다 10.2% 증가한 3천709만7천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금속면에서는 총수요의 증가에 따라 강재생산 역시 6.3% 증가한 4천695만4천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조강생산 기준 생산량 증가보다 강재 기준 증가율이 높은 것은 열연강판 및 반제품 증가에 의한 강재생산의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코일 포함시 올해 수입량은 631만7천t으로 99년보다 9.5%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형기자]

## '목우촌 닭고기' 품질 국제적 인증

주한미군부대에 국내 육류·채소 등이 납품돼 국제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축협경북도지회에 따르면 중앙축협목우촌은 처음 지난달 23일 주한미군에 '목우촌 닭고기'를 매월 60t(1억3천800만원어치)씩을 공급하고 있다.

축협 목우촌 닭고기는 제품 품질 및 위생검사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의 '해의 육가공공장 기준'에 합격해 국내 축산물로는 최초로 미군납 공식업체로 지정됐다.

축협은 이미 닭고기를 납품하고 있는 미군 슈퍼외에도 물량이 확보

되도록 영내 개인식당이나 군인들의 급식용으로까지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닭고기를 자국에서 들여왔으며 국산제품을 구매하기는 목우촌 닭고기가 처음이다.

이는 미국시장 진출과 같은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축협관계자는 분석했다.

농협은 주한미군과 신선 채소 및 과일을 중심으로 '국산농산물공급계약'을 체결,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5만톤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했다.

[박무환기자]

2000



# 謹賀新年

## 새해 아침, 큰 뜻 이루십시오

지난해에 베풀어주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새마음, 새로운 자세로 깊은 정성을 모아 여러분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식회사 경한  
대표이사 송충호

동국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철세라믹

한국협화화학공업(주)

애경공업 주식회사